차별화된 글로컬 콘텐츠 선보인다

제1회 전북자치도 예술관광상 수상단체 디자인에보, 2년 연속 국비 사업 선정… '고택 아트 페스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민간 단체 디자인에보가 지난 4월 '2024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사업'에 선정,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3일 재단에 따르면 디자인에보는 재단이 시행하는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에보 미디어 레지던시'를 다년간 운영,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 및 교류지원과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험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2024 고택 아트 페스타(GAF:Gotaek Art Festa)'를 기획, 이를 통해 시각 미술 작품 유통과 도내·외 아티스트가 교류할 수 있는 작가 미술장터로서 네트워크 플랫폼을 운영하고자 한다.

오는 9월 4~8일 5일간 무주향교에서 이뤄진다. 지역 청년 아티스트와 도내외 시각 미술 장르 아티스트가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할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토크와 공연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이번 '2024 고택 아트 페스타'는 디자인에보와 무주군의 협력을 바탕으로 개최되며, 다양한 미술작품과 함께 고즈넉하고 화려한 전통 공간의 매력이 어우러져 전북만의 매력을 발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에보 김현정 대표는 "지역문화유산인 고택과 고건축에 대한 공간적·역사적 스토리를 대중적인 메시지로 공유할 것"이라며 "시각 미술 장터의 감각적인 경험이 결합한 차별화된 글로컬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또 박세진 공동대표는 "페스타를 통해 향교의 공간과 더불어 공간을 찾은 관람자, 컬렉터, 갤러리 관계자가 작품을 관람하고 공간을 즐기는 색다른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 및 시각 예술 관계자들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디자인 에보는 2022년에 개최한 '고택 아트페어&재즈페스타'를 시작으로, 지난해 '2023 고택 아트 페스타(GAF)'를 개최해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창작지원팀(063-230-74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제5회 전국 전통놀이 공모전 시상

대상 '쌍륙대결' 선정… 수상작 53점 20일부터 전당 1층 열린방서 전시 예정

제5회 전국 전통놀이 공모전 '우리는 이렇게 놀아!'의 대상에 '쌍륙대결'이 선정됐다.

13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따르면 4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509건의 사진이 접수, 이 중 53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작품의 창의성 △주제 적합성 △완성도 등을 고려해 심사한 결과, 쌍륙 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담아낸 '쌍륙대결'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5회 전국 전국놀이 공모전 대상 '쌍륙대결'

이어 △베스트포즈상 '굴렁쇠 소년' △열정만수르상 '딱지야 날아보자' 등 3점이 우수 작품으로 선정됐으며, △함박웃음상 △감동자극상 △상상그이상 △마루달지기선정상 등 50점이 입상했다.

수상작들은 오는 20일부터 전당 1층 열린방에 전시될 예정이다.

심사위원단은 "500여 점의 사진들이 전통놀이를 서로 다른 시선으로 다채롭게 담아내고 있어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며 "이번 공모전이 전통놀이로 하여금 기억 속 추억을 찾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통놀이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통의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많은 참여와 관심에 큰 감사를 표하며, 그 시절 추억을 되살리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함께하는 예술기행' 참여자 모집

도내 예술인 선착순 모집… 예술인역량강화 재교육사업 일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2024 함께하는 예술기행'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 함께하는 예술기행'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증진센터 예술인역량강화 재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예술인들의 선진사례 경험을 통해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운영한다.

참여자는 13일부터 선착순으로 25명 모집하며,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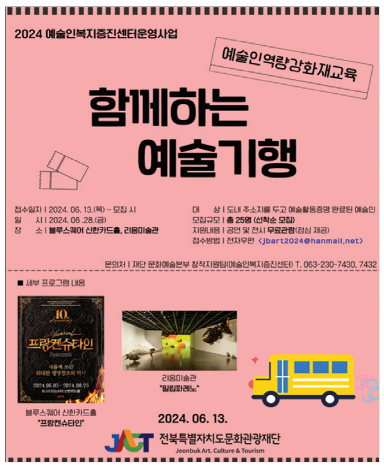
다만,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지를 두지 않거나,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 지자체 공무원,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4년도 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및 문화예술 지원사업 수혜자도 불가하다.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오는 28일 '2024 함께하는 예술기행'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 및 절차는 재단 누리집(www.jb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063-230-7430~7432)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더 특별한 전북교육, 미래 향한 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25일 교장 초청 박물관 연수 프로그램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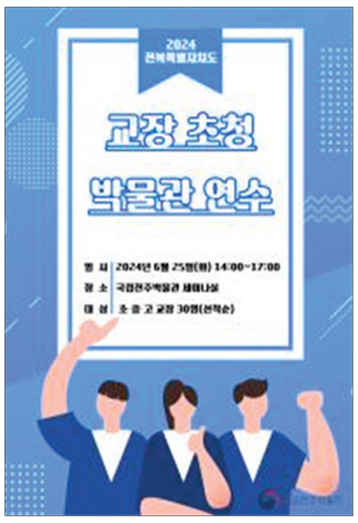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오는 25일 교장 초청 박물관 연수 프로그램 '더 특별한 전북교육, 미래 향한 박물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라 교육자치권이 확대되면서 박물관과 학교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크게 전시관람과 교육프로그램 및 국보순회전 소개로 이뤄진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특별전 '미륵의 마음, 모악산 금산사'를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한 뒤, 국립전주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전반을 소개한다. 아울러,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기획한 국보급 문화유산의 지역순회전이 우리 지역에서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 진행됨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박물관이 협업해 학교 교육이 박물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접수는 18일까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예약 가능하다. 교장 초청 연수 외에도 교사직무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접수 중이다. 참가비는 무료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오는 25일 교장 초청 박물관 연수 프로그램 '더 특별한 전북교육, 미래 향한 박물관'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https://jeonju.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고택 음악회 '고택, 고(Go)백(Back)'

15일 전주 명천재 · 22일 남원 전통서당문화진흥회서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전주와 남원의 전통 고택에서 국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고택 음악회 '고택, 고(Go)백(Back)'을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주 명천재(고택 카페)와 22일 오전 10시 30분 남원 전통서당문화진흥회(서당)에서 개최한다.

이 음악회는 판소리, 기악, 사물놀이 등 독주 및 중주 무대로 구성되며, 관람객의 몰입도와 고택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전주 명천재에서는 △판소리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 △기악독주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판소리 입체창 수궁가 중 범내려온다 △기악중주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공연된다.

남원 서당에서는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기악독주 지영희류 해금산조 △판소리 입체창 수궁가 중 범내려온다 △기악중주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사물놀이 삼도 풍물가락을 무대에 올린다.

서영민 공연 담당은 "이번 음악회는 문화재적 가치는 있지만 활용도가 낮은 고택에서 열리며, 찾아가는 국악 공연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과 국민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넓히고, 유·무형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